

시청자미디어재단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실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제외)			-	-
	(2) 정부 3.0			1.5	1.214
	(3)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0.750
	(4) 정부권장정책			5	3.262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 효율성			5	5.000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성과				
	㉞ 사업비집행률			1	0.986
	(2) 계량관리업무비			6	6.000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5	C		
	㉞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	-		
주요 사업	(2) 총인건비 인상률			-	-
	(3) 노사관리	2	D ⁺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7	6.794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D ⁺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5	4.867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3.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5	4.039
	(2)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 ⁰		
	4.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3	2.457
	(2)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1	B ⁺		
전체 합계		13.5		4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상대등급별 점수	목표부여	100	결측	결측	2	결측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표는 결측 처리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라. 추세 분석

- 해당사항 없음

(2) 정부3.0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 3.0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80.940	80.940	1.5	1.214

나. 평가내용

- 정부3.0 추진과 관련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 2016년도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 결과 양호 등급으로, 평점 80.940점, 득점 1.214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평가항목 중 우수한 영역은 정부3.0 변화관리 실적(14점 중 11.5점),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24점 중 20.45점), 원문정보공개(8점 만점)이며,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12점 중 8점), 국민맞춤 서비스 추진사례(24점 중 15.5점), 사전정보공표 운영 노력도(6점 중 5.19점),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지원 실적(12점 중 6.3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 정량지표는 8개 항목 모두 만점(26점 중 26점)으로 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50.000	50.000	1.5	0.75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공시항목을 점검 평가한 결과를 활용한다.

- 2016년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별점 26.6점으로 별점구간 20.1점 이상에 해당하여 득점 0.75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직원 평균보수 세부수당별 첨부파일 누락(별점 5점), 휴가휴직 규정 누락(별점 3점), 수입지출현황 첨부파일 누락(별점 3점) 등 미공시 3건, 보수복리후생비 산정 방법의 적용 착오로 인한 수치오류 등 허위공시 3건(별점 13점), 공시변경 6건(별점 2.6점)으로 총 26.6점의 별점이 부과되었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65.250	65.250	5	3.262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국가주요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소관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을 산출한다.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65.250점, 득점 3.262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 점
①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25	83.202	1.040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7	0.000	1.000
③ 장애인 의무고용	0.5	100.000	0.500
④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3	21.500	0.065
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 중소기업제품	0.4	100.000	0.400
- 기술개발제품	0.2	98.144	0.196
- 여성기업제품	0.2	98.601	0.197
-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및 서비스	0.2	27.581	0.055
- 중증장애인 생산품	0.2	26.390	0.053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0.2	17.831	0.036
- 녹색제품	0.2	92.086	0.184
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	100.000	0.450
⑦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	43.345	0.087
계	5.0	65.250	3.262

- 장애인 의무고용, 중소기업제품 구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항목은 만점을 달성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였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및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목표 대 실적	89백만원	145백만원	100.000	5	5.000

나. 평가내용

- 평균인원 대비 순사업비를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유도하는 지표로, 1인당 순사업비를 목표 대 실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 2016년 목표치 89백만원에 대한 2016년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 실적치는 145백만원으로 평점 100점, 득점 5.000점으로 평가하였다.
- 2016년 목표치는 공공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2016년도 예상실적의 110%인 89백만원으로 경영평가편람에 명기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외협력 강화로 13개 기관과 협약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업 확대에 의해 순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 탄력적인 부서 간 인력 조정을 통해 수행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무인력의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동반되는 관리 인력도 신규 증원을 하지 않는 등 내부 혁신과 업무 조정을 통해 평균인원 증가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성과

㉠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98.276	98.621	1	0.986

나. 평가내용

- 재무예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집행액을 목표 대 실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 2016년 사업비예산현액 12,734백만원 중 12,515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집행률 98.276%, 평점 98.621점, 득점 0.986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예산별 세분화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월별 예산집행 실적 현황 파악 및 각 부서별 사업 집행경과보고 등 상시·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집행률을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98.27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 대 실적	29.000%	28.459%	100.000	6	6.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하향지표로서 관리업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실적을 목표 대 실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 2016년 목표치 29.000%에 대한 2016년 기관의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치는 28.459%로 평점 100점, 득점 6.000점으로 평가하였다.
- 2016년 목표치는 공공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2016년도 예상실적의 90%인 29.000%로 경영평가편람에 명기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 공공기관 지정됨에 따라 관리업무비의 절감을 위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 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리비를 사업비로의 예산을 변경하여 관리업무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부금 및 대외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은 증가하였으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의 관리비 생성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추세분석

- 2016년도 신규지정 기관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2015년 5월 설립된 기관으로 정규직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가 2016년도 2,091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방만경영 방지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3개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를 도입기로 정하고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시 포상 및 위로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한 점, 휴직기간 중 급여를 공무원 기준으로 변경 개선한 점, 건강검진시 검진항목 추가 지원을 방지하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위원회에 기관이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사가 제도개선 필요성·정부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부터 노동조합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만경영 정상화 조치로 인한 복리후생 감소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차원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점, 기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점, 노사가 협의하여 공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 3년간 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이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적

합직무를 도출하고 직무전환 프로세스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적합직무에 대한 상세직무정의서를 개발하고 직무연계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서 임금피크 적용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시 기준등급(B등급)으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임금피크 대상자도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적용하려는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과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정년퇴직 예정자가 퇴직 6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피크제도 취지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에 근무하는 고졸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복리후생제도를 적용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3.0% 이내	결측	결측	3	결측

나. 평가내용

- 2015년 5월 기관 설립 및 2016년 2월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 인건비 실적 자료가 부족하여 결측 처리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라. 추세분석

- 해당사항 없음

(3) 노사관리

- 기관은 노사관계 핵심 키워드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입장을 분석하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노사관계 진단을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3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과제 및 6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이 설정한 성과지표는 단편적이거나 측정이 모호한 경향이 있어서 기관의 노사관계 전략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노무관리 인력이 부족한데다 지역센터(7개) 운영 등으로 인해 노사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신설하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노사소통 채널을 설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및 정보공유 수준의 성과가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프로그램별로 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성을 파악하여 효과성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상급기관의 종합감사에서 신입직원 채용,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

비에 대한 부적정한 지급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채용 및 대가 지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 및 소통채널을 통해 노사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안정화 및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단체협약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만계획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단체협약 개선사항 및 절차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노경협의회·노조간부 대상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인정 사유에 있어 횟수를 제한하고 조합 설립기념행사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법적분쟁시 기관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정 및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따라 15일 이내에 복직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내용은 판정 또는 판결의 주문에 따라 처리하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시간면제자 활동을 적용받고 있는 인원이 14명~15명에 이르러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 기관이 2016년 3월에 ‘근로자 참여 증진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경협의회를 설치하였고, 근로자위원을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센터와 미디어진흥부 등 소속별로 선출하여 각 지역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간 총 3차례에 걸쳐 노경협의회가 개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개최주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에는 노사협회의가 법에 정한바에 따라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2016년도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소외 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및 중장기 전략방향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및 경영환경 분석과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주요사업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SMART 분석 등에 의한 성과목표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며, 핵심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경우,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지표의 목표가 편차부여 방식과 목표 대 실적 방식으로 설정되어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방송 채널 점유율 지표의 평점 $\times 0.7$ + 참여프로그램 방송 분량 지표의 평점 $\times 0.3$

방송 채널 점유율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수 / 전체 채널 수
 참여프로그램 방송 분량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물의 전체 분량(러닝타임)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7)	득점
채널점유율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3.137 최저 : 8.863	14.000	100.000	4.900	6.794
방송분량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1,566 최저 : 6,190	10,907	90.193	2.100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을 통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점유율과 방송분량을 확대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상향지표이며, 세부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 2016년 참여프로그램 채널 점유율은 목표치 13.137% 대비 실적치 14.000%로 평점은 100.000점이며 가중치 4.9점 중 4.9점을 득점하였다. 참여프로그램 방송분량은 목표치 11,566분 대비 실적치 10,907분으로 평점은 90.193점이며 가중치 2.1점 중 1.894점을 득점하였다. 두 개의 변수지표를 합산한 결과 평점은 97.058점이며 가중치 7점 중 6.79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채널 점유율은 지역 방송사와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채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신규채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체채널 수 300개('16년 기준) 중 42개 채널을 지원하여 목표인 13.145% 보다 0.855%p 초과한 14.000%를 달성하였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분량은 제작교육 강화, 시청자 제작단 운영 확대, 원거리 지역 장비 지원 확대 등 방송분량 증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029분 증가하였음에도 실적치는 10,907분로 목표인 11,566분에는 659분 미달하였다.

라. 추세분석

- 채널점유율은 2012년 8.081%, 2013년 8.814%, 2014년 10.368%, 2015년 11.000%, 2016년 14.000%로 지속적인 상향 추세이다.
- 방송분량은 2012년 6,474분, 2013년 5,422분, 2014년 5,575분, 2015년 8,878분, 2016년 10,907분으로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대국민 미디어서비스 기반 확대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청자 제작지원', '방송참여 인프라 구축'이라는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SMART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상사업은 '시청자 제작지원', '방송참여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되었으며, 중장기 전략의 전략과제는 '시청자의 방송제작 및 참여 지원 확대'와 '방송사의 시청자

방송제작 편성 확대'로 설정되었다. 향후 대상사업과 전략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지역센터 지원으로 제작된 시청자 콘텐츠의 방송 편성 확대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채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사 지원강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설립 초기에 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제작단 지원을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경로의 시청자 방송참여를 지원하여 시청자의 소수 의견, 일반 시민의 의견, 상이한 주장과 가치관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3개의 계량지표들이 센터제작 방영시간을 제외하고는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제작단 전국화와 지역방송사 지원강화 등의 비계량지표들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률이 95%에 그친 센터제작 방영시간의 경우,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강구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과 성과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하반기 확대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참여방송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은 설립목적 및 중장기 경영목표,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센터가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센터 이용자가 센터의 교육, 장비, 시설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센터 지원을 통한 제작'이 표기되거나 방송사로부터 확인을 거친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작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꾸준한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로 평가한다.

②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begin{aligned} &\text{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 \times 0.6 \\ &+ \\ &\text{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 \times 0.4 \end{aligned}$	목표부여 (편차)	최고 : 26,540 최저 : 16,905	25,737	93.327	5	4.867
	목표부여	최고 : 28,759 최저 : 19,173	31,781	100		

나. 평가내용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확산 정도와 사회·학교미디어 교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혜인원을 통한 교육의 확산 성과를 측정하는 상향(복합)지표로서, 설립 3년 이상 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편차방식의 목표치를 부여하여 복합연인원 목표 26,540명 대비 25,737달성, 설립 3년 미만 3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목표부여방식의 목표치를 부여하고 복합연인원 목표 28,759명 대비 31,781명을 달성하였다. 각각의 평가방식별 최종 평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4.867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015교육과정 개정등 교육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미디어거점학교 확대추진을 통해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이 전년 대비 12,430명(27%)이 증가하였다.
-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라 전 국민의 능동적 미디어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미디어교육 확대 추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추진을 통해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이 전년 대비 11,146명(23%)이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은 2011년 10,003명, 2012년 10,416명, 2013년 10,782명, 2014년 8,999명, 2015년 44,695명으로 2014년 다소 하락 하였으나, 2015년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학교미디어교육 수요증가 및 3개권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설립을 통해 2015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6년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7,125명으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은 2011년 27,631명 2012년 34,014명, 2013년 29,023명, 2014년 32,129명, 2015년 46,961명으로 2013년 다소 하락하였으나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수요증가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개관 등을 통한 사회미디어교육 확대운영을 통해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화하여 2016년은 전년도대비 23%증가한 58,107명으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보편적 미디어교육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미디어교육 확대’, ‘사회미디어교육 확대’, ‘인프라 확대’라는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SMART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및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확대 추진으로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확대에 기여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보편적 미디어시대에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한 계층별 미디어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 중 미디어교육 강사양성 수를 제외하고는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미디어교육 연인원과 사회미디어교육 연인원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과 성과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국정감사 지적과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커리큘럼을 표준화하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조치 및 개선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관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③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자막방송 만족도×1/3)+ (수화방송 만족도×1/3)+ 화면해설방송 만족도×1/3)	목표 대 실적	100%	75.975	80.780	5	4.039

나. 평가내용

- 장애인의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상향지표로서, 2016년도 만족도는 목표치인 100% 대비 75.975%를 달성하여 4.039점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3개년 간 실적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까지는 목표 대 실적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100%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최근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

다. 항목별 원인

- 5년 만에 주요채널의 장애인방송 편성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의 품질 향상을 추진하여 장애인방송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0.4점) 상승하였다.
- 수화방송은 화면의 특정 범위가 가려지는 등의 사유로 방송사업자가 편성을 꺼려함에 따라 편성량, 질적 수준 등이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라. 추세분석

- 장애인방송 중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은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증가율이 2.41%, 1.6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수화방송은 평균증가율이 0.61%로 낮고 2016년도는 2015년 대비 소폭 감소(-0.5점)하였다.

(2)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보편적 미디어 활용 및 접근권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소외계층 접근권 제고’라는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SMART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및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지급 및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편의 확대 등 서비스 개선과 시청각 장애인용TV 성능 개선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인식제고 및 고품질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방송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 중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방송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과 성과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실적이 미흡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관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4]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text{전체 사업자 채널수}-\text{법규위반 사업자 채널수})/\text{전체 사업자 채널수}\} \times 100$	목표 대 실적	100%	77.377%	81.902	3	2.457

나. 평가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방송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한 성과를 평가하는 상향지표로서, 2016년도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은 목표치인 100%에 22.62% 미달하여 2.457점으로 평가하였다.

※ 최근 3개년 간 실적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까지는 목표 대 실적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100%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최근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

다. 항목별 원인

- 방송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 대상 전체 사업자 채널수의 증가(2015년도 236개 채널 → 2016년도 305개 채널)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준 책자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적극 유도하여 위반 사업자 채널수를 감소(2015년도 70.75개 채널 → 2016년도 69개 채널)시킴으로써 준수율은 전년 대비 7.356% 증가한 77.377%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은 2014년 67.161%, 2015년 70.021%, 2016년 77.37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2)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시청자 중심 미디어 환경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법규준수 모니터링',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분석'이라는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SMART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및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수립 및 정책소통 강화로 규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조사·평가 체계 개선으로 정책 신뢰성 확보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시청자 중심 미디어 환경 구현을 위한 신규 미디어분야의 사후규제 강화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광고 매출 증대를 위한 광고 유형별 법규위반 형태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계량지표가 계획 대비 77.4%에 그쳐 이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목적과 성과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엄격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의 지적과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채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관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